



# 하늘은 크로 바르보다

2012. 5. 1 - 2012. 5. 31  
랑카쿠기 그들이 사는 이야기

같은 하늘 다른 하늘, 같은 마음 다른 마음.

# 5월 우리들의이야기 목차

Spoken English class 13

Juction board & Notice board 14

짜뚜레가 배운 스리랑카 음악 \_첫 시간 29



팡팡 터지는 개그를 선물해주는 짜군.

요즘 웃기는 언어기술 상승세. 많은 일거리로 인한 만성피로와 자살하게 다침

7 기의 벽화 이야기 15-24

나의 하얀 가면, 내 안의 오리엔탈리즘. 36-38

일기장 발췌 39-40

만성 다침 비로서 회복, 탈피되는 중.

요즘 부정적 다이어트에 집중 중. 드디어 혼자만의 시간을 지켜워하기 시작하다.(기쁨)

AGM 공연 25-26

웨삭! 부처님 오신 날! 27

Zoo 로 가요! With 칠드런 클럽 28

한 달 하고 느낀 내 느낌. 34-35

리더에서 벗어나서 지금 3살로 돌아간 상태.(오션드보다 어렵)

멘붕 소진 정신분열 진상!! 나에게 맡겨라 전문인. 랑카팀 최고 진상 (감당불가).

5 월 고포모더?- 4-7

양치질 캠페인 10-12

내가 관심 가지게 된 랑카 32-33

칼푸나의 에세이 42

나에게 멘붕,소진은 없음. 잘-지내는 중.(생각 없어?)

요즘 암마들에게 인기 상승 엄청남. 댄스를 보여달라는 요구 폭발.

함께하는 350PPM Story 수두왈라하 8-9

암마! 고포더 인네? 30-31

Nayana 의 5 월의 일기 41

더 이상 나에게 멘붕을 얘기하지 말라. (켄클한테 넘김)

우리팀의 펜더. 요즘 인기 상승세. 모든이들이 이름을 외우고 있다. 그이름은 바로 "펜더"



첫 셀카

랑카팀은 5 월도 '파란색' 이라는 주제로 디자인을 각자 만들었습니다.

다름에서 오는 색다른 모습이 있는 랑카팀 보고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랑카팀의 모습을 재미있게 봤으면 합니다.

[이곳의 글들은 칼푸나(소영)가 본 팀원들에대한 모습입니다. ]

# 5월 우리들의 한달일정 :D

SUN	MON	THE	WED	THU	FRI	SAT	
		1	2	3	4	5	
		물주기 With 피켓, 벽화작업				출근 NO	
		와루니 아까 게더러 초대 [Made Food, Drink] Alone 날미니home	- 커미티미팅 - Youth club  <b>아띠, 혼나다.</b>	- 아쇼카 간의회의  통금시간 체크 [여 1 6:30Pm, 여 2 7:30P, 남 2 8:30PM]	- junction board - Children club  <b>4월보고서END</b>	<b>웨삭</b> [3:15AM 집도착]  첫! 밤늦게 구경 With 칠드런, 트럭	
6	7	8	9	10	11	12	
	출근 NO, 잠시출근	물주기 whit 피켓				<b>드디어! ZOO</b> With 칠드런 - Y's men celebration	
Weekly Report	벽화[정부 급 휴일 지정] Thank U :D	- 벽화 완성 - 피켓 수정	- 아쇼카미팅 - 가구공장2탄 - 커미티, Youth	- 하루종일 가구 공장 사포질 (Made.표지판)	- 중간점검 준비 - 2기벽화 재색칠 (말린드라따따제안)		
	니할, 가푸리 집 방문	짜뚜레 감기 / 아파요ㅠㅠ	3시간30분 분노의 사포질	말린드라따따집. 노래배우기 (AGM준비)	말린드라따따집 또 연습.....	비취 파티... 라고 병쳤음	
13	14	15	16	17	18	19	
350ppm 수업회의 Weekly Report	물주기 whit 피켓 / [16일부터 중간점검준비]					칼푸나 첫댄스수업 짜뚜레 음악수업	
	- 2기벽화 - 디고롤라수업	- 2기벽화 <b>완성</b> - 알림판 마무리	- 허벌드링크	- spork 준비 - 양치캠페인준비	- children class [350ppm 노래수업] - sporken		
	'수두왈라하' 350ppm 노래수업	햇빛 무진장 강했던 날ㅠㅠ	말린드라따따집 또 갔습니다...	아쇼카!! '분업화'를하여라	말린드라 따따집 We made Korea food.	회의, 휴식	
20	21	22	23	24	25	26	
말린드라따따집 고선생님 우리집방문 오션드생일파티	물주기 with 피켓			오랜만에 비가 왔습니다!!!!!! NO 물주기		-수업, 체육활동	
	- 중간점검 준비, 한국어수업 준비, 양치캠페인 준비		- AGM 준비무한사포	- AGM!!!!/노래, 연주			
	리더 제도 없앴.	콜라켄느 준비후 일찍 취침	notice board (드디어설치함)	다시 사포질 할줄...	드디어 끝났다!! -표지판설치	회의, 휴식	
27	28	29	30	31			
콜롬보3명구경 모라투어2명구경 닐미니, 켈름 청소해주셨어요.	Only 피켓팅	물주기 With 피켓 . 350ppm 준비					
	- 디고롤라 350ppm 수업 2 - 커미티미팅	- 350PPM 분업화	- 허벌드링크 - Youth club	- 한국어 수업!! - 콜롬보/짜뚜레 (350ppm 준비)			
	<b>아띠,</b> <b>칭찬받다</b>	비자연장!! [닐미니, 짜뚜레감]	켈름컴퓨터 아파요ㅠㅠ	5월 안녕? 6월 안녕?			

# 5월 고민모터-?

일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우리들의 이야기



와루니아까지



총회 수업



웨사이다!!



벽화 마무리!!



무한사포질....



2기벽화재색칠



드디어 스포킹잉글리시시작



ZOO!



Y's men



오랜만디고콜라?



벽화완성



인기쟁 콜라퀸



'수두왈라하'



5월만 5번이문



물이 안나와요.



메일 단체사진!



불안한 안내판



1월서기



쿠반제세깁네 후시루



AGM:P



디고콜라



35OPP준비



운동중!!!

랑카팀의 5월은  
일적으로 바쁜 초반, YMCA일과 아띠가  
할수있는 일에 대한 고민을 하다보니,  
5월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 5월 고향모터-?

일거일로 마음거로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우리들의 이야기



0501 5월의 시작은 와루니아가게터러에서\*\* 신혼집에서 맛있는 점심과 구경. 조용하고 살기좋은 곳이었다!



0502 7기 벽화 막바지 작업. 로고와 디테일 작업을 열심히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두둥! 곧 개봉!!!!



0504 Children club 위삭으로 인해 많이 안왔지만, 다들 여러나라 춤을 배워보았답니다 플루랄라.



0505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이지만, 이곳은 위삭으로 신이나게 구경을 다닌다. 밤늦게 콜롬보 구경하다!!!!!!



0509-10 2일동안 7기는 또 한번 가구공장체험 정말 분노의 사포질만 엄청 해서. 지치기도 많은 걸 느끼기도



0511 말린드라따따 제안으로 2기 벽화를 재색칠작업에 들어가다! 그들이 전혀 없는 이곳 우리가 접수하다

# 5월 고호모터-?

일거일로 마음거로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우리들의 이야기



0512 드디어 스리랑카 유명한 ZOO!!! 정복하다. 칠드럽클럽과 함께 트럭타고 야무야무- 동물엄청많음



0512 Y's men 정기총회. 비취파티라고 했으나, 축하 인사말만 2시간 넘게 들었다.하하하하.



0514 오랜만에 한 디고롤라 수업. 합반수업으로 350ppm workshop '수두알라하' 노래 수업.



0516 2기 벽화 재색칠작업 완성!! 한결 밝아진 벽화로 인해서 다들 너무 좋아해주셨습니다~



0518 칠드런클럽 350ppm workshop 1 '수두알라하' 노래부르기, 너무 잘해줘서 뿌듯뿌듯^^



0523 알림판 완성!! 드디어 기차역에 설치. 그러나 부실하게 부착을 해서 만들고도 마음이 불편하다...

# 5월 고향모터-

일거일로 마음적으로도 우여곡절이 많았던 우리들의 이야기



0523 나날히 허벌드링크가 인기몰이!! 양이 부족할정도입니다. 뷔트뷔트



0524 AGM때문에 아띠들은 무한 사포질. 무한 일중입니다... ㅠ ㅠ



0525 대망의 AGM 노래도 부르고, 연주도 하고, 춤도 추고!! 인기쟁 아띠들.



0528 디고롤라 합반 수업. 내가 살고 싶은 마을 살고 싶지 않은 마을 그리기.



0528 디고롤라반 대표 켈름씨의 수업. 아이들은 ... 알아 듣기 힘들어하는데... 점점점점



0530 350ppm 준비를 열심히 하는 아띠들. 열심히 각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수두왈라하

우리는 350ppm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어떤 활동을 진행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벽화의 주제도 '함께하는 350ppm' 으로 진행하고, 라온아띠가 함께하는 클래스에서 워크숍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었다.

우리들은 350ppm 캠페인을 위한 사전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싱할라언어로 환경 노래를 만들어서 함께 노래 부르고, 환경이야기를 만들어서 동화구연도 진행하였다. 두 번째로 워크숍(환경을 주제로 그림그리기)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로 결정했다.

노래와 동화구연은 수두왈라하(북극곰)의 이야기를 준비하였다.

## 지금부터 재미있는 수두왈라하의 이야기를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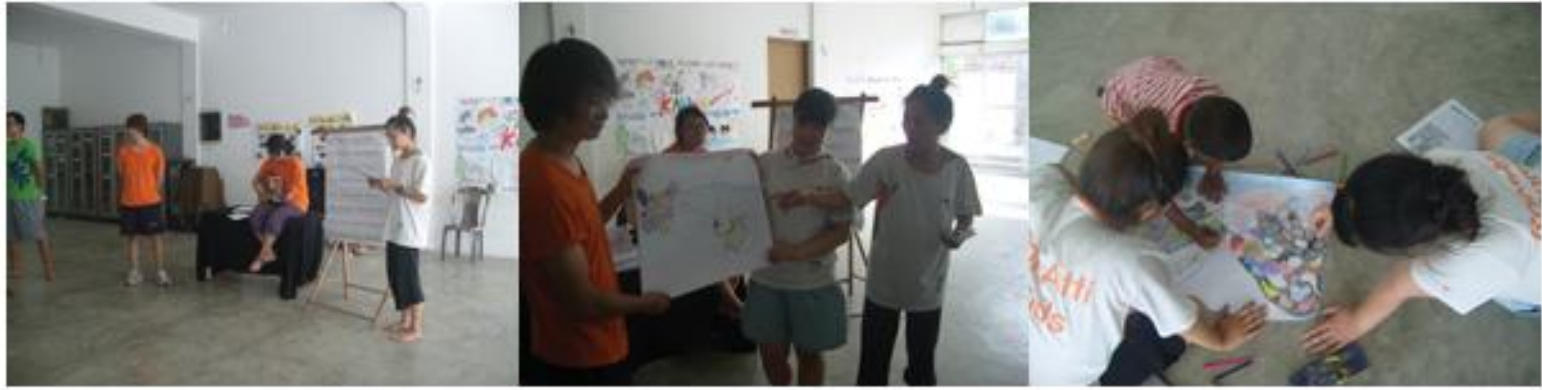


집에 혼자 있었던 수두왈라하는 심심해서 놀이터로 놀러갔어요. 놀이터로 놀러가던 중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고 평소처럼 놀이터를 올라갔는데 평소와 달랐어요. 놀이터는 쓰레기 산이 되어버렸답니다. '간다이~(냄새나~)' 쓰레기 산으로 변한 놀이터가 무서워서 도망간 수두왈라하는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수두왈라하의 집에도 쓰레기더미로 뒤덮여 버렸어요.





# 수두왁라하



북극곰아 북극곰아 너의 보들한 하얀털이 난 좋아  
북극곰아 북극곰아 너의 동그란 눈이 난 좋아

차가운 얼음 위에 니가 살 수 있게  
쓰레기 산위에 니가 살지 않게  
차가운 얼음 위에 니가 살 수 있게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지 않을게



350PPM

# 양치질 캠페인

우린 5월 2일 커미티 미팅에서 7기는 혼이 났다.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없다는 충고를 받고 우린 각자가 이때까지 여건상 숨겨뒀던 프로젝트를 하나씩 하나씩 회의에서 끄집어내어 고민을 했다. 그러나 난 당시 하고 싶었던 것이 없었고, 내가 이곳에 하고 있는 활동들에대한 고민을 더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들을 좀 더 확장시키고 싶단 생각을 했다. 즉, 있는 것부터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왜냐면 있는 것에 대한 변화를 주고 싶은데 그것에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하고, 변화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의 고민의 시간을 가지었지만, YMCA의 많은 행사들과 우리들의 중간점검 준비로 자꾸 뒤로 밀려가고 있는 중이다. 솔직히 말만하고 행동으로 이루어짐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그것이 코디네이터에게 먼저 물어보고 행할 수 있는데 지를 체크하는 부분에서 의견이 쉽사리 통과되지 않음에 의해 지치기도, 힘들도 있고. 의견을 내고 난 뒤에 팀원끼리 고민을 했을 때 의견이 일단 물어보고 하자는 결론이 많이 나면서 다음으로 진행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면서 능동성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

이곳에 와서 우리들이 혼이 난 것도 이점이 큰 것 같다. 말에서 끝나고, 쉽사리 행동이 되지 않는 문제점. 의견을 냈을 때 부딪치고 힘들을 알면서도, 도전하고 시도해보는 점이 부족한 점, 어쩔 이 힘듦의 과정을 이야기를 해보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이 상황들에 적응해버리고, 지쳐버려서 그리고 이것 또한 티나지 않기에, 커미티 미팅에서 혼이 나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생각이 든다. 부딪치는 방법이 아직까지 어렵고, 방법적으로 방향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러던 중 우연치 않게 찾아온 아쇼카아이야(코디네이터)의 분업화를 시작해야할 때라는 제안으로, 우린 중간점검과 활동들을 분업화하게 되었고, 감히 양치질 캠페인을 시작해보고싶단 생각이 들었다 팀원끼리 전에 이 의견이 나왔었는데, 지속적인 캠페인이 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 뒤로 미뤄졌던 것이다. 최근에 동물원 구경을 하던 중 점심을 먹고 이를 닦는데 무진장 민망했던 내 경험과 어르신들과 말을 치아를 보게 되면서 양치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일을 벌이게 되었다.

나의 첫! 목적지는 루나와 병원이다. 허벌드링크만 하고 있는 이곳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아에 대한 중요성과 양치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의 첫 목적은 루나와 병원이다.

[우리 팀원들은 6기단원들이 고민을 하고 노래를 추가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조용함을 깨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6기 단원이 했던 것을 계속 이어 받아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했지만. 고민을 하다가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우리만의 노래를 좀 더 추가하고 허벌드링크를 일단 더 해보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임했다. 지금 그렇게 2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지내고, 우리만의 색깔을 보일만 한 것들이 아직까지 생기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 캠페인을 응용하고 싶단 생각과 이것을 우리만의 색깔 있는 허벌드링크로 만들고 싶다는 나의 자그마한 소망이 생기면서 루나와병원에서 첫 시작을 해볼까 한다.]

# 양치질 캠페인

그리고 난 뒤, 칠드런 클럽과 디고롤라 지역에서까지 연장선으로 해보고 싶다. 디고롤라는 더 연장되어서 디고롤라에 직접 가서 온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양치질 캠페인 프로젝트를 열고 싶다. 거창할 것 같아 보이는 나의 양치질 프로젝트는. 일차적으로 양치의 필요성, 양치의 방법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떠올릴 수 있고, 인식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개발 중이다. 지금 생각한 건 양치노래, 그림을 통한 설명(치아에 세균이 생기는 과정, 치아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하고자 한다. 이것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준비를 좀 더 탄탄히 해서. 나의 목적의 날에 프로젝트를 시작해 볼까 한다.

칫솔과 치약을 직접 나눠주면서 이 캠페인을 설명하고 같이 해보는 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고민은. 라온아띠가 주는 공짜! 칫솔 치약이다라는 생각을 깰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중이다. 그냥 가질 수 있는 것, 공짜니깐 어서 받아가자라는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트리고 싶다. 끝없는 고민과 내가 저질러버린 이 일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점점 나의 소박한 캠페인은 점 점 더 커져가서 겁이 나기도, 또한 걱정도 된다. 혹 내가 한 것에 대한 모습은 캠페인이 시작되어 알겠지만. 실패로 돌아간다고 해도. 난! 나에겐 시도를 해봤다는 점과 실패 후 돌아오는 나의 깨달음이 있을 것이기에 겁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보려고 한다.

Raonatti 7 :-D			
When	2012 - 06- 3week.	Who	Lanawa hospital, children's club and Digorolla class
Tooth education Plan			
Title	Tooth brushing program, cleaning tooth.		
Goal	Knowing proper tooth brushing and importance of tooth brushing Keep in beautiful tooth		
Plan	1. Learn how to brush teeth. 2. Learn why people have to tooth brush. 3. Classify which is good food & bad food for tooth		
Way	1. Teach how to brush teeth oneself 2. Showing cartoon about negative effect from without brushing tooth. 3. Explain how to brush teeth by image.		
Preparation	1. Tooth brush 2. Tooth paste		
I think to tooth education.			
When I ward here, the most interesting thing was that tooth brushing of their people was different with Korea. So I've got curiosity about this. Why they don't brush their tooth after lunch? Why most adults don't have healthy tooth. After looking their tooth, I think they need education about tooth brushing. So, I want to educate people in Lanawa hospital. And in children's club and Digorolla class also.			

1 이디리빠사 닷  
/ 앞니 닷아요  
2 아이너 닷 아니너 닷  
/ 옆니 닷아요  
3 다때히 닷 다때히 닷  
/ 윗니 닷아요  
이야이야이야이야

4 닷월러 애풀베뜨 커런느  
/ 안엘 닷아요  
5 디버 마디인느  
/ 혀를 닷아요  
6 닷 마딘느 혼다이 닷 마딘느 혼다이  
/ 이 닷는거 좋아요 X2

마일로 아이스크림 시니 뽀뽀뽀 칸느  
/ 마일로 아이스크림 설탕 조금조금 먹어요  
말루 끼리 띠- 고닥고닥 혼다이  
/ 쉐성 우유 차 많이많이 먹어요

7. 닷 마딘느 혼다이  
/ 이 닷는거 좋아요  
8 리다간느뜨 비르닷 마딘느  
/ 잠자기 전에 닷아요  
9 우되쓰는 우되쓰는 닷 마딘느  
/ 아침 일찍 아침일찍 이 닷아요  
10 아삐닷 마딘느 고닥 오네.  
/ 우린 이 닷는걸정말 원해요

커미티에 제출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 [그러나,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치송을 (숫자송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곧 수업시간에 실행 할 예정입니다.

# 에피소드 후, 달라진 양치질 캠페인

나의 제안을 코디네이터와 미팅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으나, 칫솔치약을 사는 것은 다른 프로젝트에 쓸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말과 루나와병원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했다.

[루나와병원에서 우리가 하는 건 당뇨병관련이라서 이 점에 대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나, 치과 쪽은 관련이 없고, 이것을 건들기엔 YMCA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캠페인이 전문화되지 않고,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전달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반대했었다. ]

순간 또 다시 반복이 되는 것 같았다. 시작하기 전에 말해주지 않고, 다 준비 끝난 후 안 된다는 말 한마디 순간 나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내가 미리 준비한 것은 루나와 병원에서 하고 싶어서 인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 디고롤라 아이들에게 스낵 대신 칫솔을 주면 안 되는가? 등등. 그렇지만 아쇼카아이야는 선뜻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며, 원하면 커미티때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요구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야기가 계속 될수록 날 이해해주고 내가 하는 것에 도와준다는 생각보다 나의 계획이 너무 거창하고, 굳이 그걸? 그냥 양치하는 방법 보여주면 된다는 제안을 계속 이야기를 해줬다. 난.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봤을 땐. 굳이 돈이 들 필요도 없고, 내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뭔가 해줘야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같이 하고 같이 배우고 실행하자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것일 텐데. 내가 순간 뭔가 하고 갈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계획은 거창하고, 나만의 고집이었던 생각이 들었다. 이번계기로 나의 고집스러운 계획은 다시 소소한 즐거운 캠페인으로 돌아 갈 수 있는 해프닝이 되었던 것 같다. 마침내 나의 캠페인은 정말 소박해진다.

But, 루나와병원에서 당뇨병캠페인으로 시도해볼까한다!!! 또 다른 도전을 부딪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코디네이터와 부딪치고 우리에게 굴복을 선물 아닌 선물을 해주니.

팀원들도 시도하는 프로젝트들이 자꾸 뒤로 미뤄지는 게 아닌가. 소통을 하고 맞추어 간다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낀다. 이것은 거듭 적으로 고민 하고 부딪치다가 돌아갈 에피소드이지만, 그래도 재밌게 준비하고 더 힘차게 !!!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소박해도 좋다!

시도해봤으니 그것으로 난 행복하다.



설명할 양치프로그램 그림. & 싱할리어 추가함.

# Spoken English Class

5월 18일, 드디어 Spoken English Class가 시작되었다. 앞서 월말보고서의 설명대로 대상은 Children's club 아이들로 한정되었다. 5월 12일에 영어 인터뷰에는 19명이 왔는데 수업에는 21명이 참석하였다. 6월 1일 수업에는 25명이 참석하였다.

## \_ 진행방식

Sri Lanka가 영국의 식민지 영향으로 영국식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Oxford 출판사 문법책을 사용하기로 함. 여기에 추가 학습자료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Essay 쓰기 책을 추가하여 단어암기와 글쓰기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고 싱할리어와 영영사전 뜻을 적은 유인물을 추가로 나누어주어서 진도가 빠른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고자 한다.

## \_ 현재 문제점

### 1. 나이

9살부터 17살의 아이들이 같이 수업을 듣다 보니 기초부터 중급까지가 섞여있어서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어려움 이미 교재를 배운 아이가 두 명 있음.

### 2. 언어

싱할리어를 자유롭게 구사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수업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많음. (수업이 끝날 때쯤 Mr.Ashoka가 교실에 들어와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을 조사했는데 반정도가 손을 들었음. 다음주부터 수업에 들어와서 통역해주겠다고 하였으나 AGM 행사 관계로 수업이 열리지 않았음. 앞으로 금요일에 수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일에 추가 수업을 진행하고자 함. 개인 사정으로 6월 1일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음)

### 3. 시간

금요일 Children's club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데 6pm-7pm이지만 실제시작이 6:10pm쯤이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시는 경우가 많아 7pm이후 진행이 불가능함. 학습시간이 두 명이 돌보기에는 너무 부족함.

### 4. 영어

나는 원어민이 아니다. 아 .....



수업진행 Chathura(재범), 수업보조 Nilmini(서연), 수업준비보조 Kelum(승창).

## Junction board & Notice board

5월 한 달 동안 지난 두 달보다 눈에 보이는 일을 많은 일을 한 것 같다. 747앞 사거리에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모라투와 기차역에는 알림판을 설치하였다. 왜 하는지 모르는 일들이었지만 결국 하였고 그곳에 둘 다 아직까지는 잘 있다.

### \_ Junction board

짜뚜레 기본 디자인 - Mr. Ashoka 검사 - GS Mr. Sampath 검사 - Mr. Bernard 검사 (무한반복)  
완성된 디자인과 함께 모라투와 시장님 면담 (바로 통과)

모라투와 커미티 자체회의 (다음날 통과)

총괄담당자 면담 (30분 기다리고 5분만에 통과)

담당부서 과장 면담 (1시간 기다리고 통과)

YMCA와 시청의 Joint Program으로 변경되고 다시 디자인하여 시장님 2차 면담  
(Welcome to Moratuwa 추가)

Mr. Godfrey 검사 - Mr. Bernard 검사 - Mr. Godfrey 검사 (계속 바뀜)

출력업체 선정 (3군데 업체에 견적서 보내고 답이 온 두 곳 중 한 곳 선택)

업체방문, 수정작업 (광고판 주로 만드는 회사)

글씨 크기와 폰트의 문제로 차 안에서 읽히지 않음. 야간에 안 보인다는 이유로 특수 처리하였는데 일부 글씨만해서 밤에는 거의 안보임. 정부가 할 일을 YMCA에서 한 느낌.

### \_ Notice board

설치장소 크기 측정 (모라투와 기차역 검표소 유리창)

Mr. Jayanth 목공소에서 팀원과 크기 상의 없이 만들어줌 (사이즈가 부적합하여 가로 세로 돌림)  
만들어준 대신에 팀원들이 다른 일을 도와주고 옴.

며칠간의 페인트 칠과 로고 그려넣기

Mr. Bernard와 함께 설치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

추가로 버팀목 설치하자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 이야기 없음

안에 게시물도 YMCA홍보물 이외에는 아직 없음.



# Wall Painting of 7<sup>th</sup> Batch

(2012.04.17~05.07)

## 1\_벽화 시작 전; 벽 선정

벽화를 그릴 장소부터가 마땅치 않았다. YMCA 본 건물이 아니라 옆에 딸려있는 자그마한 건물의 벽을 활용하고자 했으나, 외벽이 과하게 울퉁불퉁하고 약해서 벽화를 그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서 다른 벽을 찾아 나설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최종으로 낙점된 벽은 화장실 맞은편이자 쓰레기통 옆에 있는 벽이었다. 기존의 3,4,6기의 벽화에 비하면 너비가 좁은 편이고 높이가 긴 편인 벽이었다. 너비가 좁고 높이가 높은 벽에 다섯 명이 달라붙어 그림을 그리는 게 어떤 일인지는 상상도 못한채©



▲ 기존에 벽화를 그리려고 했던 벽



▲ 결국 낙점된 벽

## 2\_벽화 시작 전; 주제 선정]

벽이 선정되고 나자, 우리는 벽화에 무슨 내용을 담아 그림을 그릴 것인지에 대해 거의 일주일 동안 토의를 했던 것 같다. 단순히 예쁜 그림을 그리고 심미적인 만족만을 누리기에는 우리가 투자할 시간과 노력들이 조금은 아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오고 가고, 부모님들이 오고 가는 벽에 그림을 그리게 되었기에, 더더욱 의미 있는 그림을 그려두고 싶었다.

4기는 디고롤라 가든에 대한 그림을 그렸고, 6기는 컴포스트빈에 관한 그림을 그렸다. 우리도 우리 기수가 주력을 다한 프로그램에 대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벽화를 처음 논의하던 시점이 3월이었고 중간평가를 대비해서 5월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력을 다할'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우리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왜지 우리가 주력을 다할 것만 같은' 프로그램을 그리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어떤 라온아띠들이 현지에 도착한 첫 달에 앞으로의 다섯 달을 예측할 수가 있겠는가! 그냥...우리는 프로그램을 그리기는 글렀다는 생각을 하며 좌절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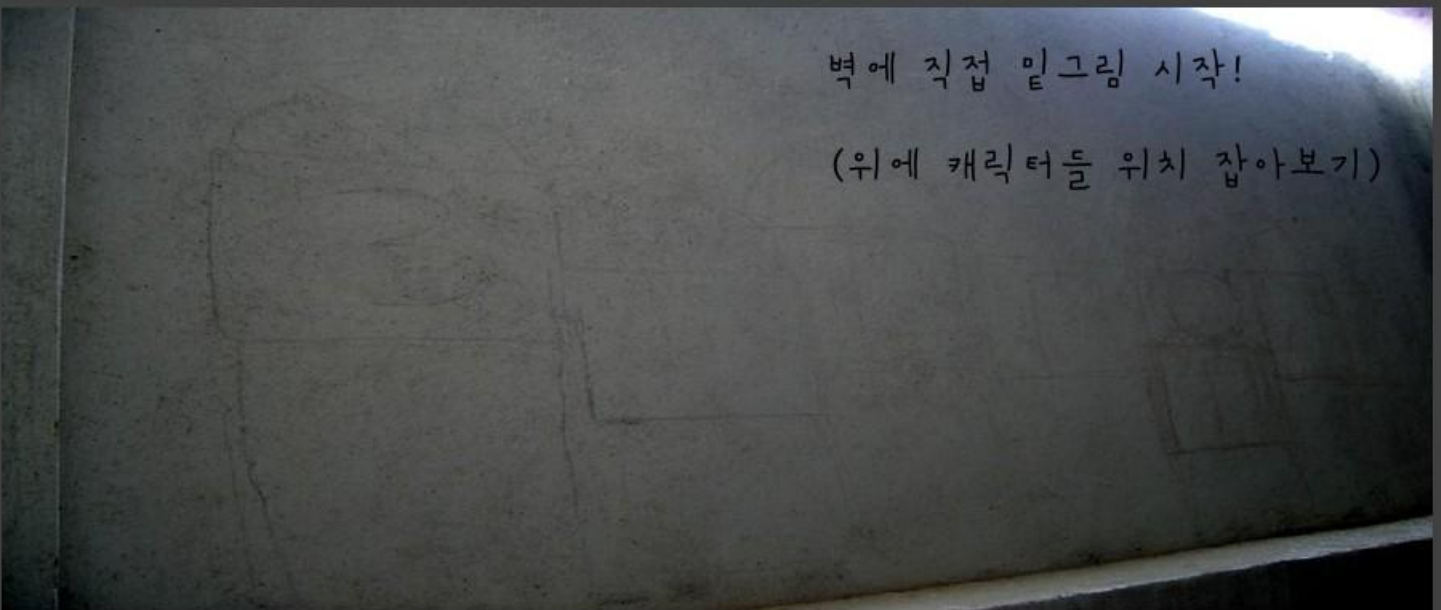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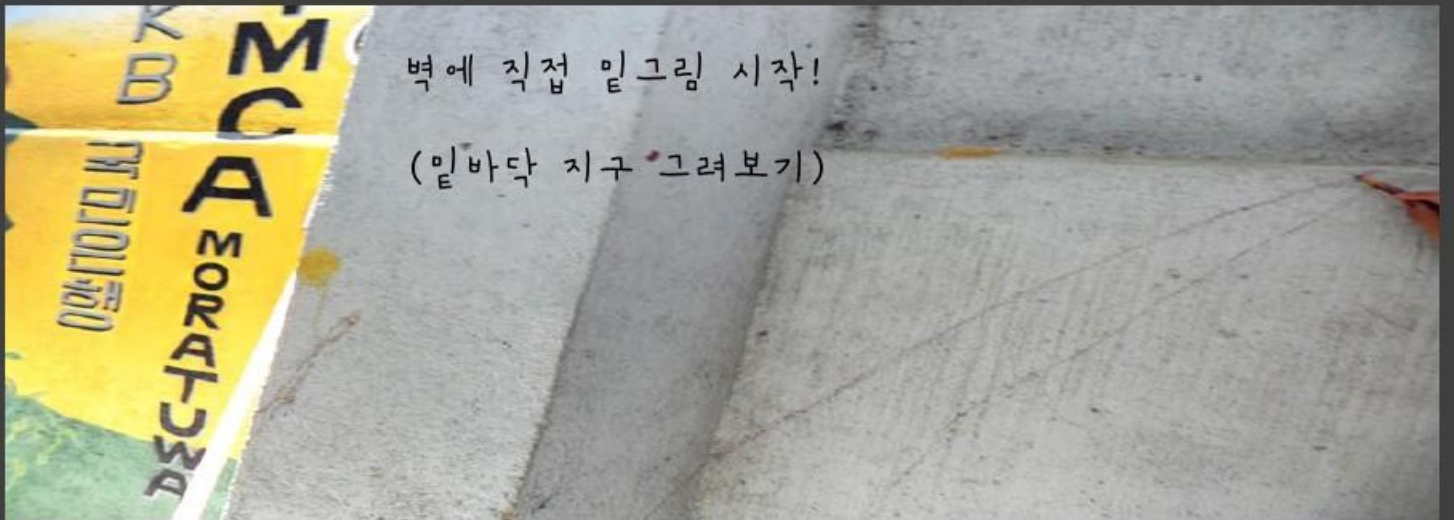
그리고 다음에 나온 이야기는, 라온아띠가 아시아 곳곳에 퍼져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벽화를 그리자는 것이었다. 라온아띠가 비단 스리랑카에만 파견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6개지역에 고루 퍼져있다는 것을 알리는 작업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렇게 다른 국가의 존재도 알리고, 아시아의 다른 5개 국가들을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국가들이 아시아 어느 땅에 붙어있는지도 알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었고 우리는 아시아지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아시아 지도를 그리자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각 국가들의 전통 의상을 입은 다양한 사람들(성별, 나이, 키, 외모 등)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을 기획하게 되었다.

그림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게 되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었다.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은 조금 상투적으로 보인다, 차라리 그 대신에 다 함께 어떤 구호나 슬로건을 외치고 있으면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나왔다. 우리는 350ppm을 떠올렸다. 다른 지역에서, 같은 구호를 외치는 데에서 오는 연대감을 표현하는 데에는 350ppm이 가장 적합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8기가 마지막이 될, 이 곳 모라투와 YMCA의 많은 아이들이 라온아띠가 더 이상 오지 않더라도 350ppm캠페인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글귀가 추가되어도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우리는 그 설명을 쓰는 데에 옆면의 자그마한 벽을 활용하기로 했다.

설명에 포함될 우리 벽화에는 글씨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벽화의 모든 글귀를 싱할리어, 타밀어, 그리고 영어로 써내려 가고자 했다. 세 가지 언어가 모두 쓰이는 국가이 니만큼 세 가지 언어로 모든 글귀를 새김으로서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소외받지 않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간상의 문제로 한 가지 언어밖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고, 우리는 싱할리어로 설명을 서술하기로 결론지었다.



### 3\_벽화 시작; 밑그림과 스케치



### 3\_벽화 시작; 배경색 초벌 페인팅 & 지구 초벌 페인팅



첫 번째 배경색 칠하기  
벽에 매달리기 신공 켈름



배경색 칠하고 또 칠하고!  
오른쪽 구석에 날미니는 캐릭터 구체화중



나야나와 짜뚜레가  
실제비율에 최대한 가깝게  
줄자들고 스케치한 아시아!!

3\_벽화 시작; 페인팅!!!!



#### 4\_벽화 마무리 (로고와 글씨작업)



5\_벽화 완성\_플샷



# Repainting 2<sup>nd</sup> Batch's Wall

(2012.05.11~05.16)

모라투와 YMCA에는 입구부터 라온아띠들의 벽화가 쪽 늘어서있다. 가장 입구쪽이 2기 벽화, 그 옆에 3기 벽화, 그 옆에 4기 벽화, 그 옆에 6기 벽화 그리고 그 옆에 7기 벽화까지. 그런데 워낙 매연이 심한 도로변에 가장 가까울 뿐더러 가장 오래된, 2기의 벽화는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미 그림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때가 타고 손상이 되어 있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함은 분명했지만, 똑 같은 색을 찾아서 다시 색칠을 해나가기에는... 우리 벽화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다들 페인트를 손에 또 묻히고 싶어하진 않았다.

사실, 훼손된 벽화들을 보며 나름대로 라온아띠 활동의 지속성을 생각해봤다. 이 많은 벽화들이 2년 뒤, 3년 뒤에도 고운 색채를 자랑하며 YMCA 벽에 붙어있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현지에서 벽화작업을 할 수 밖에 없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벽화를 그릴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라온아띠 벽화의 손상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우리는 다시 2기의 벽화에 붓을 갖다 댔다. 비록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린 벽화이지만, 2기의 벽화를 7기가 다시 칠하고 있다는 것이 기분은 묘했다. 오전에 유난히 햇볕이 잘 드는 곳이어서 오전에 작업을 할 때면 늘 애를 먹곤 했는데, '2기도 이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입구쪽 벽면이었기 때문에 차가 들락거릴 때마다 작업을 멈추고 자리를 비켜줘야 했는데, 그때도 또 '2기도 이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벽화를 마무리하고 나서, 마치 우리 벽화를 마친 양 너무나도 뿌듯했지만, 더 이상 모라투와 지역에 라온아띠가 파견되지 않는다면... 이 벽화들을 복구해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오피스 직원들은 라온아띠가 그린 벽화를 지울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벽화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는 건지, 생각이 복잡해졌다. 8기 이후에는 모라투와에 라온아띠가 파견되지 않는다고 알고있기에 매 프로그램마다 유난히 지속성에 예민해질 수 밖에 없다. 다른 건 제쳐두고, 지속성의 측면에서 벽화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걸까.

Before\_



After\_



## 4기 벽화 근황\_

이거어떡하지.....우리더러수습하라던데...

옆집에서 공사하는 바람에 4기 벽화에 꽤나 큰 손상이 왔어요...ㅠㅠ

Ps.이건 5/17일자 사진입니다. 지금의 벽화상태는 도저히 보고서에 담을 수가 없어요....ㅠㅠㅠㅠ





# A G M (Annual General Meeting) 공연



**AGM(Annual General Meeting)**은 스리랑카 YMCA에서의 연례 행사로서 스리랑카 전국 YMCA 인사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날 입니다. 영광스럽게도 모라투와 YMCA가 25년만에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 전날 전야제 격인 행사에서 라온아띠만의 공연 시간을 만들어줬으면 한다는 부탁에 약 3주간의 시간동안 알찬 ? 준비를 하였습니다. 현지곡인 '수랑가니', '로웨세마' 2곡을 준비하였고 한국곡 '여행을 떠나요'와 짜두레의 바이올린과 닐미니의 기타 연주곡인 '카울루피얀파뜨' 를 준비하였습니다. '로웨세마'의 경우는 현지 보드멤버인 말린드라의 도움으로 말린드라 자택에서 잦은 민폐를 끼치며 즐겁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즐거웠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밀린 일정들과 현지 스케줄에 부가적으로 AGM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실 부담이 컸고 준비하는 시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유쾌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자발적인 시작이 아니라 주어진 일이라는 점과 구체적인 곡 수와 누가 어떤 파트를 맡는 지 등을 이사회에서 세세히 정해주었다는 점입니다. 또 워낙 중요한 행사인지라 우리 아띠에게 요구했던 수준 역시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기간에도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고 유쾌한 준비 시간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들 정신 없이 YMCA를 청소를 하면서 이것이 진정 자발적인 활동인가? 우리는 현지YMCA를 지원하기 위해서 왔나?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오랜 준비를 하면서 언젠가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겠지만 라온아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 AGM! 우리들의 모습들,,



칼투나의 춤? 과 짜두레 날리니의 연주



YMCA 공연 중



# 웨삭! 부처님 오신 날!



## 5월 5일

우리에게 익숙한 어린이날인 이 날은 스리랑카에서 '웨삭'이다. 부처님이 오신 날이며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에서 큰 축제로 손꼽히는 날이기도 하다. 일주일 동안 웨삭은 계속 되고 주말 밤은 화려함의 극을 달한다.

절마다 부처님의 500여가지 이야기를 화려하게 수놓은 전구장식들을 하나씩 설치하였고 집집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연등을 가득 달아 놓았으며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나 다니는 시민들에게 '단살' 이라고 하는 무료 음식을 나누어 준다. 공짜 음식도 보고 화려한 스리랑카의 밤도 볼 수 있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이야기가 조명에 따라 반짝이고 눈을 떼지 못하는 화려한 불빛들이 함께 합니다.



화려한 연등들



인파로 가득한 길거리



# zoo로 가요! With 칠드런 클럽



5월 12일  
아침 일찍 트럭을 타고 동물원 고고



아이들과 함께한 아침 식사!



수족관도 둘러보고



코끼리다 !!!!



힘드네잉 ...



음료수 한잔도 하고



함께 인사를 도와주신 어머니님



칠드런 클럽 아이들과 함께한 동물원 나들이 .

라온아띠가 한 일은 사실 별로 없지만 아이들과 하루 즐겁게 지낸 것만도 행복했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챙기는 어른스러운 아이들의 모습과 식사를 챙겨주시고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챙겨주신 칠드런 클럽 어머니들까지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 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가기 위해 3월 일정을 미루어 뒤늦게 5월에서야 가게 되었지만 더운 날씨 속에서 활짝 웃는 아이들을 보며 하루의 피로가 가시는 날 이였습니다.

# 짜뚜레가 배운 스리랑카 음악 \_ 첫 시간

Mr. Kumara's Music Class

3월부터 토요일 음악수업에 들어갔고 10여 곡 정도를 배웠다. 그 중 한 곡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은 Kawlu Piyanpath. 멜로디가 익숙하고 아름다워서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3월 보고서에서 썼듯이 스리랑카에서는 7음계를 글씨로 써서 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NWC 프로그램으로 이 곡을 오선지로 옮겨보았다.

## Kawulu Piyanpath()

H.M Jayawaden

J-120 Introduction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e piece 'Kawulu Piyanpath()' by H.M. Jayawaden. The score is written on a single staff in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and a 2/4 time signature. It begins with an 'Introduction' section, followed by 'Song 1' and 'Song 2'. The notation includes various note values, rests, and phrasing slurs. The piece concludes with a final double bar line.

# 엄마! 꼬헤더 인네?

## 나야나가 말하는 주제선정이유?!



스리랑카에 오고 첫 활동 시작일 부터 YMCA는 점심시간 이후만 되면 언제나 북적거렸다. 그건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오는 아이들과 수많은 엄마(엄마)들 때문이었다.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봤을 때 정말 대한민국의 헬리콥터맘(자녀의 주변을 항상 돌아다니며 자녀를 챙기는 엄마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를 뛰어넘을 자가 있을까 싶었는데 스리랑카의 엄마들도 자녀의 등하교를 (심지어 YMCA에서는 클래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한다.) 책임지고 있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왜 자녀의 주변을 이렇게 철통같이 지키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것이 주제 선정의 이유이다.

## 애들아 학교가자!!! :)



등교는 물론 하교까지 책임지는 스리랑카의 엄마들!! 간혹 따따(아빠) 또는 형제자매들이(이 경우 이미 많이 성장한 형제자매) 학교의 등하교를 시켜주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종종 뚝뚝이나 벤을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뚝뚝의 경우 엄마들이 미리 뚝뚝의 번호와 기사의 전화번호를 받아놓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벤의 경우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스쿨버스처럼 이용하는 모습이였다.



# 엄마! 꼬헤더 인네?

## 엄마는 행복하다! :)



처음 스리랑카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등하교 등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단순히 성범죄 또는 유괴, 납치 사건들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위한 이유라고 생각했다. 사전 조사할때 스리랑카의 내전 때문에 발생했던 소년병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이래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민감하구나'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쇼커아이야(현지코디네이터)의 정보에 의하면 스리랑카의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자녀의 결혼 전까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언제까지나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때문에 이런 식의 자녀 등하교를 위해서도 회사에 휴가를 내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한다. 단순히 범죄대한 보호를 넘어서 의례 부모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보호, 부모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행동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고 귀찮아하는 모습보다 누구보다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엄마와 따따를 볼 수 있었다.

## 나야나가 보는 스리랑카 엄마들!!! :D



스리랑카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궁금했던 질문이 생각났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는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 할 수 있는가?'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자녀라고 무조건 모든 것을 희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난 아직까진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대한 답을 내리진 못했다. 하지만 스리랑카의 많은 엄마와 따따들은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실행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다. 스리랑카의 부모님들의 모습이 무조건 좋다! 좋지 않다! 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다시 한 번 내가 가진 고민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 내가 관심가지게 된 랑카

칼뚜나가 이곳 와서 새롭게 생긴 관심사. 어쩔. 이곳에서만 가능한 관심사 알지도 모르겠다.



YMCA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들리고, Tee time, lunch time, Rest time, 끝나고도 꼭! 들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루시루, 오션드 집' 이곳에서 나의 즐거움이 되었던 곳.

언제나 웃어주시면서 반겨주는 엄마가 계시고, 맛있는 티를 주시는 따따가 계시고, 매력덩어리 루시루, 오션드가 있는 이곳. 내가 이곳 와서 가장 스리랑카를 많이 느끼게 해주신. 이곳이 내가 관심가지게 된 1호이다.

p.s) 최근, 집 구조를 옮기셔서 침대를 아늑한 공간에 넣어 두셨습니다. :D



일주일 한 번은 꼭 들리는 우체국. 매주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간다 핸드폰 없는 삶을 살면서 연락 할수 있는 수단이 된 편지. 받는 즐거움 주는 즐거움도 있는 이 편지가 너무 즐거운 낙이다. 평소에 연락못한 이에게 마음도 전하고, 전화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보낸다. 장점은 10일 뒤에 도착한다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우체국이 나의 관심2호이다.



전화를 하기 위해선 전화방을 가야지, 전화도 인터넷도 가능하다. 이곳에서 한국전화는 모바일은 한국돈으로 100원, 집전화는 50원이다. 인터넷은 15분에 200원이다. 이곳에서 주말에 들려서 부모님에게도 전화하고, 친구들이랑도 연락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을 자주 들락달락하면서 많은 분들을 알게되었다. 가면 누구보다 반겨주시고, 나도 '아유보안' 이라고 말하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 받는 즐거운 곳이다. 나의 3번째 관심. 전화방이다.



# 내가 관심가지게 된 랑카

칼뚜나가 이곳 와서 새롭게 생긴 관심사. 어쩔. 이곳에서만 가능한 관심사 일지도 모르겠다.



평소에도 하늘 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이곳 와서 하늘보는 것이 더 좋아졌다. 제일 좋은 점은 높은 빌딩이 없기때문에 손쉽게, 그리고 넓게 하늘이 보인다는 점이다. 뽕뽕린 시야속에 보이는 하늘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내마음을 하늘이이야기 해주는 것 같기도하고,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답다게 생각해준다. 이곳에서 나의 친구가 되어준 하늘이 난 너무좋다. 나의 4번째 관심사 내 친구 하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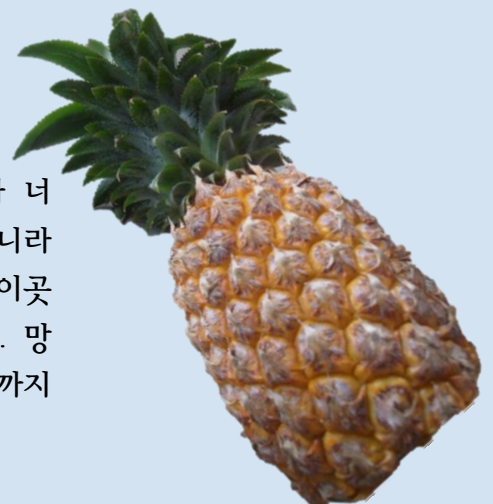
p.s) 대학교 근처에있던 바다를 좋아했지만, 이곳에서 간혹 보는 바다는 그때 생각하지 못한 바라보면 그냥, 웃음짓게 만들어준다. 이곳이좋아서 이 모든 자연물이 소중한고 아름답게 느껴지는것 같다.



내가 이곳에 와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친구이다. 내가 이곳에서 느낀 내 마음과 내 생각, 그리고 이곳의 추억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준 나의 소중한 시간 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마운 친구이다. 팀원들은 책 같다고도 이야기를 해주는 나의 일기장은 나의 뒤죽박죽 생각을 그리고 차분하게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나의 5번째 친구 일기장이다.

P,s) 신기한건 내가 이곳에 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미루지 않고 일기를 쓴 점이 가장 신기하고 뿌듯한 점이다. 하하하

마지막 나의 관심사 '안나씨 (파인애플)'.  
원래 한국에서도 너무 좋아하는 과일이지만, 이곳에서 내가 너무나도 많이 사먹었고 아직도 사먹는 과일이다. 팀원뿐 아니라 YMCA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내가 좋아라 하는 파인애플. 이곳의 최고의 먹거리 중 하나이다. 요즘은 망고가 제철이라서... 망고에게 관심을 좀 더 두는 편이지만. 파인애플은 내가 갈때까지 쪽- 관심을 가질 내 친구이다.



내려놓다.

리더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복잡한 생각들도  
다 내려놓고  
명하니  
하루를 또 한 달을 보냈습니다.

느낀 것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내 맘 같지 않아 접어두고  
짧은 핑계로 마무리 합니다.

대신  
좋은 글 하나를 남깁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으리라는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도 변화되었을지.



# 나의 하얀 가면, 내 안의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 동양을 타자화하여 비화하는 서구중심적 인식

「데미안」의 가장 유명한 구절,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라는 말에서, 그 세계라 함은 결국 자신의 오만과 편견으로 이루어진 편협한 공간일 것이다.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생각이었는지 깨닫는 그 순간에는, 분명 짜릿한 기분도 들지만 그보다도 스스로의 좁은 그릇에 대한 씹쓸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 나의 오만하고 편협한 생각은 바로, "스리랑카의 모든 사람들은 구김살이 없고 행여 구김살이 있어 보이더라도 내면은 그 누구보다도 착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람들일 것이다"라는 생각이었다.

이 곳에 처음 도착했던 3월,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지코디네이터가 제한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보드멤버들, YMCA직원들, Youth Club멤버들, Children's Club 멤버들이 전부였다. 게다가 발목을 다치고 허리를 다치게 되면서 주말에 바깥을 험사리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박혀있는 날이 많았던 것도, 내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씩 '아무에게나' 말을 걸 수 있을 정도로 배짱

이 생긴 요즘 나는 깜짝 깜짝 놀라곤 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성적으로 희롱하는 발언을 하는 청년들을 만났을 때에도 놀랐고,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랬다. 내가 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고, 불편해하고, 충격을 받았는지 그 때는 몰랐다.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이토록 놀랐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널리고 널린 게 이런 사람들 아닌가. 분명 이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놀랐던 건, 그들의 행동 그 이상의 무언가에서 기원한 것임이 틀림없다!

내 놀람의 이유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다. 단지, 그 이유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뿐. 나는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스리랑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걸 인정하기란 생각보다 어려웠다.) 이 사람들은 가진 건 없어도, 늘 행복하게 웃음지으며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가진 건 없어도, 자기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탐욕스럽게 물질에 집착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에 나는 그토록 '과하게' 놀라워했던 것 같다. 이 곳의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리와는 다르게 때문지 않고 순수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걸 보고자 했던 것이다. 보고자 하는 것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접하곤 놀랐던 것이 아닐까? (나도 지금 내가 이 문단의 글을 쓰면서 "~했던 것 같다"는 등의 유난히 모호하고 확신 없는 문장을 쓰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그건, 내가 이런 생각을 이곳에 살면서도 무려 3개월 가까이 해왔다는 것이 무척이나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일 것이다. 으어어어어어어)

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무튼 나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3세계를 다루는 많은 매체들이 얼마나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가득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국내훈련을 시작하기 전 사무국이 숙제로 꼭 보고오라고 했던 <코이카의 꿈-스리랑카편>도 그랬던 것 같다.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예쁜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예쁜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지 않았던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3세계의 아이들이 얼마나 못되기도 하는 지에 대해 서술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조금은 더 객관적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팩트를 과하게 미화해서 미담을 내보내는 등의 방식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얼마나 구역질 나는 행위인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물론 여태껏 내가 해온 제국주의적인 생각들 역시도 구역질 나는 행

위였다. 우웁

내가 제3세계에 대한 매체를 만들게 된다면... 이 곳의 현실을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보내고 싶다. 빈곤이 초래한 아픔은 과장하지 않고 딱 아픈 만큼, 아름다운 이야기는 과하지 않고 딱 그만큼 아름다운 만큼, 놀라운 것들은 과하게 충격적이지 않게 딱 놀라운 만큼 말이다. 그렇게, 담백하게. 아름다운 이야기만 내보내는 것은-그것도 그대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미화하여 내보내는 것은 오히려 제3세계의 빈곤이나 복지의 부재에 대한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담을 내보내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데에서 그친다. 혹은,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기운 내서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등의 다짐만을 남길 뿐이다. 우리는 제3세계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배고프고 교육을 못 받은 아이들이 어떤 모습인지 객관적으로 봐야지만 교육의 필요성과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이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를 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뭐 그러다 보면 가끔은 빈곤 속에서의 '못된' 아이에 대해 서술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의 탓이라는 것을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나도 언젠가엔 동양에 대한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신랄하게 비판하곤 했다. 또 국내훈련 당시에는 자기 안에 나도 모르게 제국주의적 발톱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단 얘길 들으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했다. 어리석은 오만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나는 제국주의적인 시선을 지닌, 흔하디 흔한 하얀 가면을 쓴 사람일 뿐이었다는 사실이 요즘 끊임없이 나를 찌르곤 한다..



아.....어렵다

1

“왜 그런 기분 있잖아...”라는 말로 시작하는 말 뒤엔 늘 애매하고도 추상적인 수식어가 준비하다. 그렇게 애매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주정뱅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말 말고는 달리 이야길 시작할 말을 찾을 수가 없다.

왜 가끔 그런 기분 있잖아,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 쉽게 지나치던 출근 길에 쏟아져 내려오는 햇빛도, 747레스토랑에 다녀오며 늘 보던 간판도, 말썽꾸러기 루시루의 장난도, 이젠 험사리 지나칠 수가 없다. 쉽게 지나치기에는 내게 남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일까.

퇴근을 앞두고 그네에 앉아 루시루가 미끄럼틀에서 장난치는 걸 보다 문득 슬퍼졌다. 이런 시간에 놀이터 그네에 앉아있는 게 몇 년만인지, 사람을 절로 웃음짓게 하는 맑은 미소를 가진 아이를 만난 건 얼마만인지. 루시루가 얼마나 멋지게 커나갈지, 오샨드가 언제쯤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지, 궁금한 것들과 걱정되는 것들과 또 기대되는 것들이 한 가득인데 내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슬펐다. 그리고 바랐다, 이 꼬마가 절대 라온아띠를 기억하지 못하길. 행여 기억하더라도, 그리워하지는 않길.

그리워만 하며 살더라도 그 관계와 인연이 가치 있다고 말하기엔, 이미 나부터가 그리움에 너무나도 취약하고 그리움을 두려워하는 겁쟁이인지라 그리 말할 수가 없다. 그리움은 비단 떨어져있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을 때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이토록 피부로 느꼈던 적이 있는지.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라는 어떤 시인의 말처럼, 나는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벌써부터 그림자다. (5/8)

2

내가 흘러온 짧은 거리, 그 골목 골목 숨어있던 비바람과 폭풍우를 피해 이곳까지 왔다. 내 눈앞에 펼쳐진 가리워진 길을 보건데, 이끼처럼 등성등성 낀 안개에 한치 앞도 예상을 하지 못하겠다. 그럼에도 나는 불확실에 대한 불안함을 머리 위에 가득 이고 힘겹게 남은 삶의 경사를 오르려다. 때론 생각한대로의 정도(正道)를 걷지 못할지도 모르지. 그렇게 내 삶의 궤적이 내가 애초에 생각한 것과는 다른 색으로 칠해져 버릴지라도, 그렇게 모든 색이 망쳐질지라도, 어느 봉우리에 올라서든 뒤를 굽어보면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겠는가. 나도 모르게 살금 살금, 예상치 못한 낯선 색의 발자국을 남기며 나는 오늘도 걷는다. 무거운 내 고난과 시련이 부디 갖가지 색의 발자국을 남겨주길 바라며. (4/30)

3

누군가와 반드시 함께하지 않아도, 홀로 떨어져있어도 당당하게 반짝반짝 빛날 수 있고 싶었다. 넘어진 내게 누군가가 손 내밀어주지 않아도 굳이 섭섭해하지 않으며, 두 무릎의 흙 따위는 가볍게 툭툭 털고 내 힘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함’을 갖고 싶었다. 그런데 그 ‘강인함’과 오만함의 경계를—함께 있을 때 더 빛나지만 혼자 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 것과, 늘 혼자 빛나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마음의 경계를—찾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5/10)


루이제 린저는 말한다, 삼십 이전에는 고통과 걱정애 완전히 자신을 맡겨야 한다고. 털 뽑힌 호랑이가 되어야 한다고. 이에 따르면, 한국에 있었다라면 비밀상적었을 시련과 난관이 나를 찾아와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며 징징댔던 지난 날은,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안정'에의 집착이었던가! 그렇게 내 마음엔 오늘도 '비밀상적'인 난관이 남긴 멍자욱이 들지만, 그 멍자욱은 푸른 젊음의 또 다른 흔적이었음을. 나는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젊었노라'고, 후일 털뽑힌 호랑이가 되어 말할 수 있길! (5/10)

## 5

인간이란 동물은 얼마나 우스운가. 안정적일 때에는 자기 생이 너무 단조롭고 지루해서 불만이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이나믹할 때에는 자기 생이 너무 불안정해서 불만이다.—아니, 아니지. 실제로는 단조롭고 지루한 인생을 '안정적이다'라는 단어로 합리화하고, 실제로는 너무나도 불안정한 인생을 '다이나믹'하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는지도 모르지.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기가 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인건가..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처럼 무책임하고 냉정한 말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절대적인 "진실, 진짜"는 없는가 보다. 그 어떤 것도 "진실,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것 만이 유일한 진실이고 진짜일 뿐. (5/17)







지난 3개월을 ‘나야나’라는 인물로 살면서 ‘정수경’이라는 인물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가물가물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나는 내 목표였던 ‘스스로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는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요즘 내가 가장 스스로에게 많이 하고 있는 질문이다. 아직까지 내가 내린 대답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법은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난 스리랑카에서 사랑하는 법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다. 이곳 사람들은 항상 밝게 웃으면서 나에게 인사해주었고 부족한 싱할어로 대화하면서 답답해 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주시거나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설명 주었다. 또,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함께 즐거움을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한국에서와는 또 다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즐겁게 웃을 수 있었던 5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것이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다.

이제는 스리랑카에서 있을 시간보다 있었던 시간이 더 많은 시점이 되어 버렸다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아직도 난 부족하고 바보 같은 생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흘러버린 시간이 너무도 아쉽고 아깝게만 느껴져 버렸다. 때로는 이곳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만 싶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조차 후회가 남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후회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많이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누고 보답하는 시간이 된 것 같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받은 사랑의 반만큼이라도 이분들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졌기 때문에 난 5월을 나의 스리랑카생활의 쉼표로 생각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시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나의 스리랑카 생활에 쉼표를 찍었던 5월이었다.

# Nayana의 5월의 일기

# 칼푸나 5월 에세이

이곳에 온지도 시간이 꽤나 지났다. 이곳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고, 다른 아띠 4명과 산 것도 꽤나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다. 내가 있을 시간이 있었던 시간보다 작은 거보면 말이다.

날 바라보는 이들의 모습을 들으면 웬지 다른 세상 이야기인 것 같다. 한국에선 흔히 들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이다. 나에게 '오야 수두'라고 하면서 내 얼굴이 하얗다고 하고, (한국에선 누구보다 검은 피부색인 나에게) 그리고 나의 춤을 보고 아름답다며 예쁘다면서 볼 때마다 춤을 춰달라고 한다. 이 말을 아마 한국에서 들었다면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치만 내가 의아해 할 틈도 주지 않으시고, '칼푸나'라고 나의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해 주신다. 이건 분명 나를 향해서 말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었다. 그래서 난 내가 너무 나의 못난 모습만 바라봤고 고정관념 속에 살았던 것은 아닌가?, 어쩔 나의 약점이라서 다른 세상이라고 느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라운아띠'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다름을 알아가는 것은 때론 충격적이기도 어렵기도 하다. [ 뺨 때리는 것이 친근함을 표하는 것? ] 그렇지만 그보다 생전 내가 살아 보지 않은 세상의 이야기를 겪게 해줘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난 내 꿈만 바라보고, 내 틀 안에서 꿈틀거리는 지렁이처럼 살았던 것 같다. 물론, 학교를 다니면서도 난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생각했다. 근데 라운아띠로 이곳에서 살아가니 더욱이 그렇게 느껴진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았던 '온실 속의 화초' 라는 말을 이제 이해가 된다. 난 정말 온실 속의 화초. 내식으로 밖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고, 날 방어하기 바빴다. 아직도! 난 날 방어하기 위해서 바쁘다. 그렇지만 라운아띠가 되지 않았다면 이 점을 이렇게 단시간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없었을 것 같다. 그건 내가 스리랑카에 와서 이들에게 많은 고마움과 사랑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다. 또 이곳에서 한국 내 생활을 되돌아 볼 수도 있었고, 이들이 사는 소박한 삶을 보면서 생각전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살았던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존재한 곳이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소소한 즐거움을 몰랐다. 그리고 감사할 줄도 몰랐다. 그리고 차갑기 바빴다. 여긴 눈만 마주쳐도 '아유보안(안녕?)'이라고 묻고, 어떤 음식이라도 나눠준다. 아 마 한국이라면 어색할 행동들을 여기서 아주 편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야 '소소함' 이란 단어의 뜻을 알 것 같다. 이 단어가 주는 엄청난 힘을 말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라운아띠의 삶이 소중하고 감사함을 느낀다. 적어도 이곳에선 마음을 따뜻해짐을 느끼게 해주고, 사람을 내 식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고, 사람이 겁나서 선을 그으면서 머리를 열심히 돌리면서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니깐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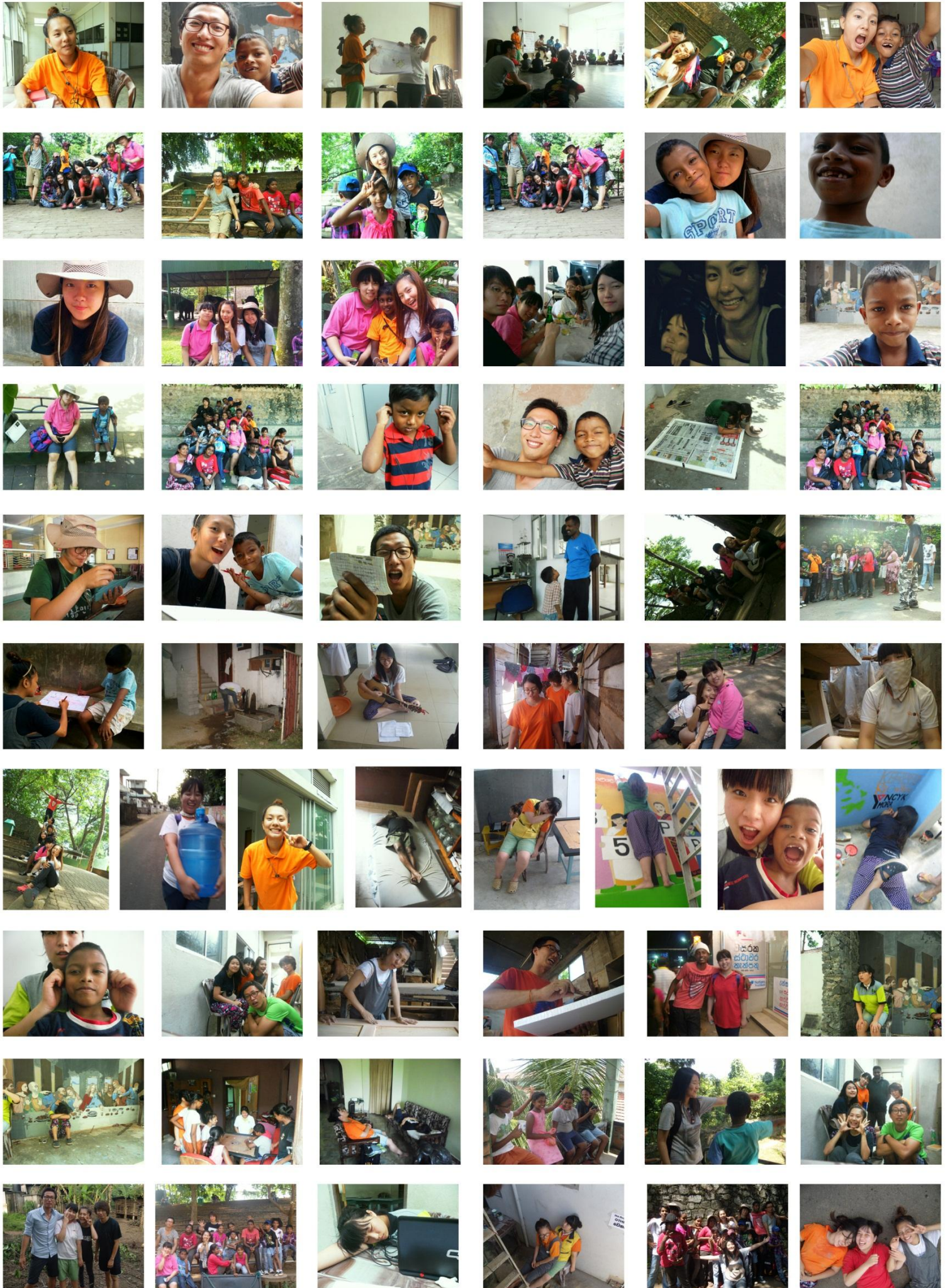
몇 일전, 루시루 암마와 이야기하던 중 내가 2달 뒤에 곧 돌아간다는 말을 하는데. 어쩔 그렇게 눈물이 고이게 되던지, 내가 준 것 없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고만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슬펐다. 벌써부터 헤어짐이 쉽지 않다는 것이 느껴졌다. 가끔은 너무 아프고, 가끔은 그림기도, 가끔은 답답하기도 했던 스리랑카인데. 나에게겐 힘든 기억보다 너무 행복하고, 잔잔하고, 많은 사랑을 주는 나라란 기억이 더 크다. 그래서 반이 지나간 지금 난 날 사랑해주는 이들이 좋아하는 나의 웃음, 내 춤, 나의 서툰 싱할리어를 사용하면서 더 많이 함께 행복하게 있다가 가고 싶다.

행복하다. 얻을 수 없는 행복. 라운아띠기에 내가 스리랑카에 왔기에 가능 한 이 행복을 오늘도 감사함을 느끼면서, 오늘도 나는 웃음 가득 행복가득이다.



오늘도 내가 진소영, 칼푸나라고 태어 난 것이 너무나 큰  
행운인 것 같다. 이렇게 건강히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인게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 같다

15월 하늘을 바라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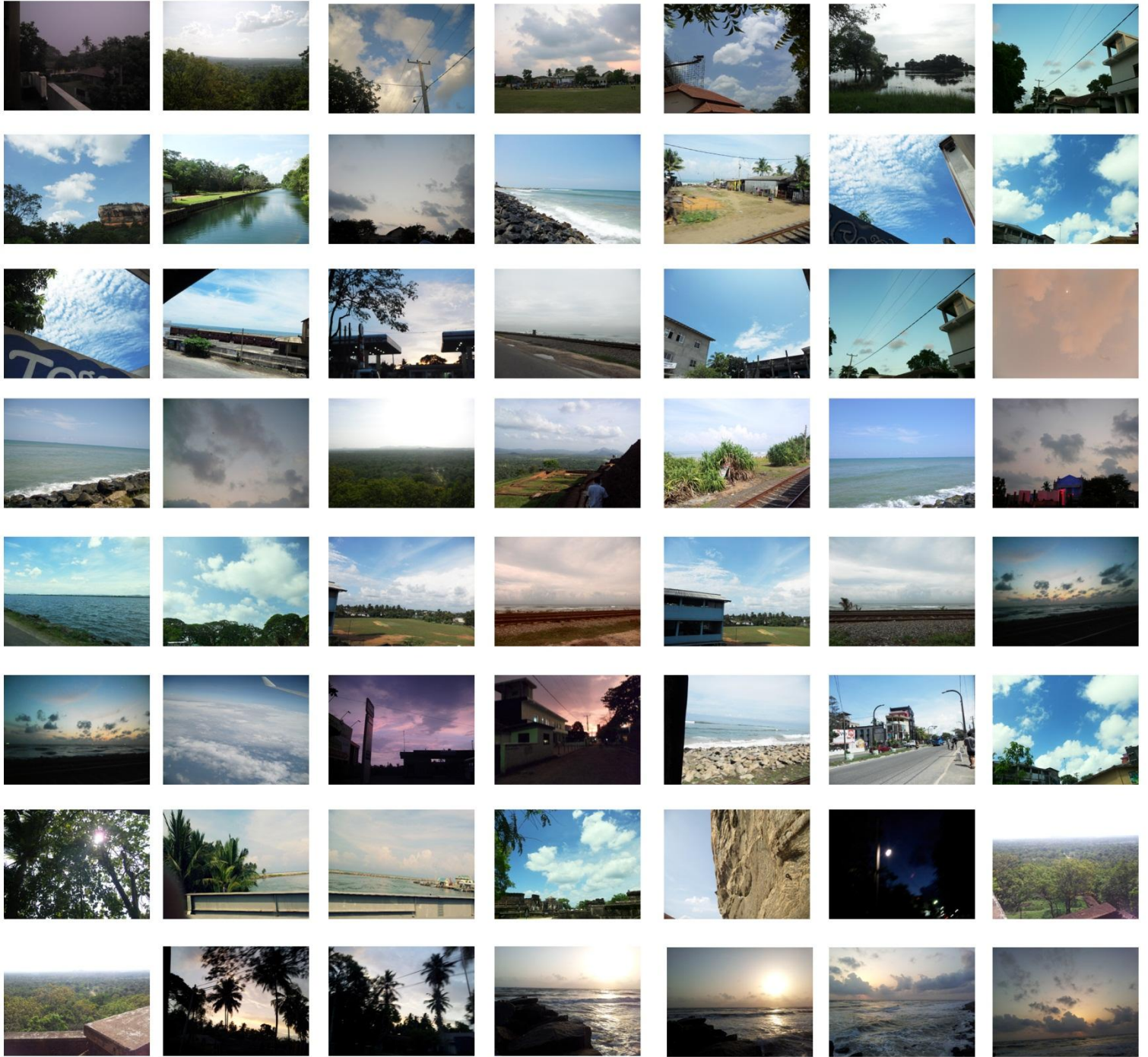






랑카팀의 5월의 모습. 마음과 머린 복잡하지만 시간이 꽤나 지난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다는 것을 느낍니다.

But, 캄푸나의 관점이라는 함정.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나가고,  
또 이렇게 시간을 마주합니다.  
다가오는 6월을 향해 달려갑니다.